

韓國流通構造의 動態的 推移—概觀—

(1968~1986)

金 元 銖

(서울대 經營大 教授)

1. 序 言

本稿는 1968년 이후 1971, 1976, 1979 및 1982년 5차에 걸쳐 실시된 '都小賣業센서스'의 조사결과와 1986년에 실시된 '總事業體센서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68~1986년에 걸친 韓國流通構造의 動態的 變化動向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각 년차에 실시된 실태조사의 결과 중 이용가능한 자료사이에 일관성이 있어 1968~1986년간에 걸친 動態的 推移를 파악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2. 店舖數의 推移

(1) 總店舖數의 推移

1986년도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포함한 총점포의 수는 99만 5,355店으로서 약 100만점에 이르는데 이는 약 20년전인 1968년의 37만 2,219店에 비하면 약 2.6배인 62만 3,136店이 늘어난 것이다.

순수한 유통산업인 도소매업과 流通周邊産業인 음식숙박업의 점포구성을 보면 도소매업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약 70.9%인 70만 6,522店이며 음식숙박업은 29.1%인 29만 8,833店이다. 도소매업은 1968년에 대비할때 2.6배가 늘어났으나 음식숙박업은 3.0배로 늘어나 유통주변산업의 점포증가가 현저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곧 고유의 유통업에 비할때 유통주변산업의 상대적인 증가세가 현저함을 나타내는 것

으로서 서어비스산업(협의)의 증가경향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고유의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1986년도의 도매점포는 6.9%인 68,760店이고 소매점포는 64.1%인 63만 7,762店에 이르고 있다. 1968년에 대비한 도매점포의 증가배율은 5.2배로서 소매업의 2.4배보다 훨씬 높다. 이는 상대적인 도매업의 擴大推移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음식숙박업의 경우 음식점은 26.1%를 점하는 25만 9,451점이며 숙박업은 3.0%인 2만 9,382점이다. 1968년에 대비할때 음식업은 3.1배가 늘어났으나 숙박업은 2.5배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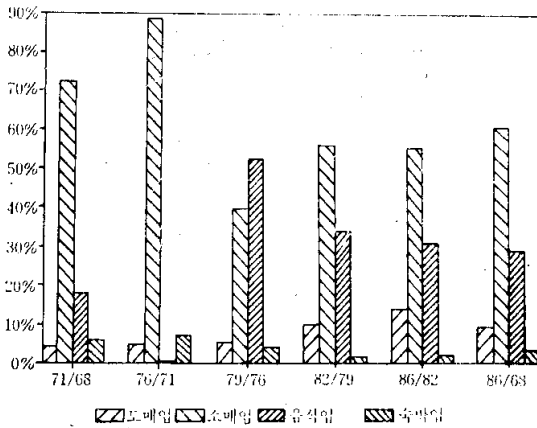
이에서 미루어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流通構造의 擴大推移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68~1986년간에 걸친 店舖增加寄與率을 보면 소매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60.0%의 기여를 하고 있고 다음이 음식업의 28.3%이며 도매업은 8.9%, 숙박업은 2.8%이다. 각 년간의 각 4개업종의 점포증가기여율을 보면 업종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1968~1971 및 1971~1976년간엔 소매업의 증가기여율이 72.4%와 88.3%로 가장 높았으나 1976~1979년간에 음식점업의 증가기여율이 무려 52.1%나 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점포수의 확대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증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매점당 소매점수의 추이를 보면 1968년의 20.0점에서 1986년에는 9.3점으로 줄어들고 있어 1968년을 기준으로 할 때 0.5%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면 過多零細의인 도매업

〈도 1〉 店舖增加寄與率의 推移



〈표 1〉 總店舖數의 推移 (단위: 店)

연도	계	도매	소매	음식	숙박
1968	372,219	13,190	264,100	83,262	11,667
1971	450,083	16,429	320,471	97,053	16,130
1976	532,958	20,260	393,651	97,271	21,776
1979	605,083	23,835	422,012	134,851	24,385
1982	821,860	45,568	542,458	207,080	26,754
1986년	995,355	68,760	637,762	259,491	29,382
86/68	267.4%	521.3%	241.5%	311.6%	251.8%

〈표 2〉 店舖數增加寄與率의 推移

(단위: %) *

	68~71	71~76	76~79	79~82	82~86	68~86
도매업	4.2	4.6	5.0	10.0	13.4	8.9
소매업	72.4	88.3	39.3	55.6	54.9	60.0
음식업	17.7	0.3	52.1	33.3	30.2	28.3
숙박업	5.7	6.8	3.6	1.1	1.5	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 流通過程에의 介入傾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소매업체의 성장에 따른 수집기능중심의 도매업의 확대경향때문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企業形態別 店舖數 推移

1986년의 企業形態別 店舖比重을 보면 도매업은 法人化率이 9.1%이나 소매업은 아주 낮아서 0.9%이다. 그러나 1968년 이래의 동향을 보면

〈표 3〉 都賣店當 小賣店數 (단위: 店)

연도	도매업	소매업	도매점당 소매점수	배율 (68=100)
1968	13,190	264,100	20.02274	1.00
1971	16,429	320,471	19.50642	0.97
1976	20,260	393,651	19.42996	0.97
1979	23,835	422,012	17.70555	0.88
1982	45,568	542,458	11.90436	0.59
1986년	68,760	637,762	9.27519	0.46

〈표 4〉 企業形態別 店舖數의 推移

(단위: 店)

연도	店舖數		比率		
	法人	個人	法人	個人	
도매업	1968	920	13,019	6.60%	93.40%
	1971	337	17,134	1.93	98.07
	1976	2,556	17,704	12.62	87.38
	1979	1,494	22,341	6.27	93.73
	1982	2,337	43,231	5.13	94.87
	1986년	6,282	62,478	9.14	90.86
소매업	1968	349	263,751	0.13%	99.87%
	1971	359	320,112	0.11	99.89
	1976	1,772	391,879	0.45	99.55
	1979	2,434	419,578	0.58	99.42
	1982	3,143	539,315	0.58	99.42
	1986년	5,927	631,835	0.93	99.07

도매업의 경우 1976년에는 法人化率이 12.6%까지 높아졌으나 1979년 및 1982년에는 약 5~6%대로 낮아진 다음 다시 1986년에는 높아지는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소매업은 1968년과 1971년에는 0.1%대로 아주 낮았으나 1976년에는 0.5%로 높아진 이후 1979 및 1982년에는 0.6%로 높아졌다가 1986년에는 0.9%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流通産業의 零細性 내지 前近代性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店舖密度의 推移

소매업을 전제로 국토면적 1,000km²당 소매점수를 보면 1968년의 2,681.7점에서 1986년에는 약 2.4배로 늘어난 6,430.9점이 되고 있고¹⁾ 인구 1만명당 점포수를 보면 1968년의 90.7점에서

1) 1976~1979년간에 있어 日本은 4214.3店이고 서독은 1660.3店, 미국은 155.3店이다. (田島, 宮下編, 流通의 國際比較, 1985, p.38)

〈표 5〉 店舖密度의 推移

(단위 : 店)

	1968	1971	1976	1979	1982	1986
국토면적 1천km ² 당	2,681.70	3,254.10	3,984.23	4,263.94	5,478.14	6,430.85
인구 1만명당	90.67	101.95	113.51	112.82	145.02	157.78

1986년에는 1.7배로 늘어난 157.8점이다.¹⁾

6.1%, 경기 5.6%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
의 0.6%이다.

(4) 地域別 店舖數 推移

1986년의 도매업의 지역별 점포비율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아 51.8%, 부산이 11.0%, 대구

1968년이래의 도매점포증가가 서울로 보면 서
울이 57.8%로서 서울에의 都賣店舖集中化 現象

〈표 6〉 地域別 都小賣店舖比重

(단위 : 店)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1968~76	1979~86	%변화
〈도매업〉									
총점포수	13,193	16,429	20,260	23,835	45,568	68,760	16,627	20,175	—
서울	31.3%	31.0%	33.7%	44.4%	57.2%	51.8%	31.99%	51.10%	19.11%
부산	11.9	9.9	13.8	12.3	12.1	11.0	11.85	11.80	-0.06
대구	0.0	0.0	0.0	0.0	4.6	6.1	0.00	3.57	3.57
인천	0.0	0.0	0.0	0.0	2.8	2.5	0.00	1.79	1.79
광주	0.0	0.0	0.0	0.0	0.0	2.0	0.00	0.68	0.68
경기	7.2	7.7	9.0	7.5	4.1	5.6	8.00	5.72	-2.28
강원	5.4	4.8	5.2	3.4	1.7	2.1	5.13	2.38	-2.75
충북	2.9	3.1	2.7	2.3	1.4	1.8	2.88	1.84	-1.03
충남	7.6	6.3	5.2	4.5	3.4	4.4	6.37	4.09	-2.28
전북	5.3	4.3	3.7	3.2	1.9	2.1	4.42	2.39	-2.03
전남	6.6	6.7	7.0	5.8	4.3	2.4	6.75	4.17	-2.58
경북	15.2	18.5	11.3	10.6	2.5	3.3	14.99	5.48	-9.51
경남	5.3	6.9	6.6	5.3	3.3	4.4	6.27	4.32	-1.95
제주	1.3	0.9	1.8	0.7	0.7	0.6	1.35	0.67	-0.68
〈소매업〉									
총점포수	264,100	320,471	393,651	422,012	542,458	637,762	326,074	534,077	—
서울	24.7%	24.7%	25.4%	23.8%	26.0%	25.8%	24.93%	25.21%	0.28%
부산	8.7	8.7	8.2	9.1	9.6	9.2	8.52	9.29	0.77
대구	0.0	0.0	0.0	0.0	5.5	5.4	0.00	3.65	3.65
인천	0.0	0.0	0.0	0.0	3.4	3.6	0.00	2.33	2.33
광주	0.0	0.0	0.0	0.0	0.0	2.5	0.00	0.82	0.82
경기	10.5	11.2	12.8	12.9	9.7	10.7	11.48	11.09	-0.39
강원	5.8	5.7	5.6	5.7	4.8	4.4	5.73	4.98	-0.75
충북	3.7	3.7	3.7	3.5	3.3	3.3	3.71	3.37	-0.32
충남	7.5	7.2	7.1	7.2	7.0	6.8	7.26	7.03	-0.23
전북	6.0	5.6	5.6	5.6	4.9	4.7	5.72	5.05	-0.66
전남	8.6	8.4	8.8	8.5	8.3	7.1	8.63	7.97	-0.67
경북	15.1	14.9	13.4	13.8	7.5	6.8	14.47	9.35	-5.12
경남	8.1	8.7	8.3	8.4	8.6	8.4	8.36	8.49	0.13
제주	1.2	1.3	1.1	1.4	1.3	1.3	1.19	1.34	0.15

1) 1976~1979년 사이에 있어 일본 140.7店, 서독 67.3店, 미국 67.1店이다. (ibid., p.39)

이 두드러지며 부산이 12.3%, 경기 6.2%, 경남 5.0%이다. 소매업의 경우에도 서울의 점포 비중이 가장 높아 25.8%이며 다음은 경기의 10.7%, 부산 9.2%, 경남 8.4%, 전남 7.1%, 충남 및 경북이 각각 6.8%, 대구가 5.4%이며 나머지 지역은 5%미만이다.

1968년 이래의 점포증가 기여율면에서 보면 제주의 그것이 가장 높아 11.3%이며 부산, 서울, 경남 및 경기도가 각각 10%대 이상의 기여를 하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의 4.6%이다.

점포점유비율의 동향을 보면 도매업의 경우 1968~1976년간에 대비하여 1979~1986년간의 占有率이 증대된 市道는 서울의 19.11%增뿐이며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큰 감소를 보인 도는 경북의 9.51%減, 강원 2.75%減이다. 이에서 미루어 도매업의 대도시집중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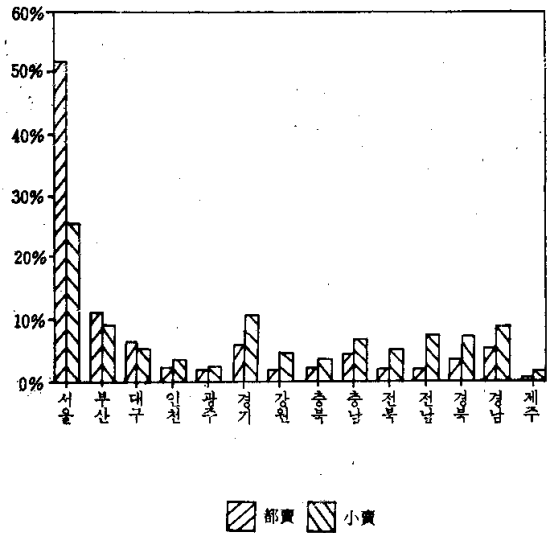
소매업의 경우 부산의 0.77%增, 서울의 0.28%增, 제주의 0.15%增 및 경남의 0.13%增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시도는 모두 점유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시도는 경북의 5.12%減, 강원 0.75%減, 전남의 0.67%減, 전북의 0.66%減이며 그 외의 시도는 0.2~0.3%대 미만의

〈표 7〉 地域別 店當人口 및 萬名當店數

	店當人口	萬名當店數	倍率	
			店當人口	人口當店數
전국	163,422	157.67	1	1
서울	58,542	170.81	0.9230	1.0833
부산	60,088	166.42	0.9474	1.0554
대구	58,545	170.80	0.9231	1.0832
인천	60,898	164.31	0.9565	1.0421
광주	—	—	—	—
경기	70,196	142.45	1.1068	0.9034
강원	61,485	162.63	0.9694	1.0314
충북	65,911	151.71	1.0392	0.9622
충남	69,099	144.71	1.0895	0.9178
전북	73,533	135.99	1.1594	0.8625
전남	83,102	120.33	1.3102	0.7631
경북	69,279	144.34	1.0923	0.9154
경남	65,493	152.68	1.0326	0.9683
제주	58,007	172.39	0.9146	1.0933

* 단 인구수는 1985년 기준임.

〈도 2〉 地域別 店舖比重(1986년)



감소를 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점포당 인구수면에서 보면 전국평균인 63.4인을 下廻하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제주이며 나머지 시도는 이를 上廻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도는 전남의 83.1인이다. 인구 1만인당 점포수를 보면 전국 평균인 157점을 상회하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및 제주이며 가장 적은 도는 전남의 120점이다.

(5) 主要 都市別 店舖推移

1986년의 50大都市의 都賣店舖占有比는 무려 90.9%에 이르는데 이는 1982년도 93.8%보다는 2.8%가 낮아진 비율이다. 도매업의 50大都市集中率은 1968년엔 77.8%이었다가 그후 1982년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1986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86년의 도매업의 점포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51.8%의 서울이며 다음은 11.0%의 부산, 그 다음은 6.1%의 대구이다. 인천, 광주, 대전이 2.0%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산이 1.2%이다. 0.1%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로는 김해, 동해, 삼천포, 태백, 속초, 동두천, 서귀포, 연천, 송탄, 남원, 금성 등 주로 分散 都賣機能을 수행하는 도시이다.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는 서울의 비중은 1971

<표 8> 主要 都市別 都賣店舖比重 推移

(단위 : 店, %)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도매점포수(전국)	13,193	16,429	20,260	23,835	45,568	68,760
서울	31.3%	31.0%	33.7%	44.4%	57.2%	51.8%
부산	11.9	9.9	13.8	12.3	12.1	11.0
대구	9.8	12.6	6.5	6.3	4.6	6.1
대전	3.7	3.3	2.6	2.2	2.1	2.0
인천	1.9	3.0	3.5	2.3	2.8	2.5
광주	1.8	1.7	2.5	2.6	2.3	2.0
마포	1.4	1.7	1.5	1.6	1.0	1.2
북천	1.3	1.0	0.8	0.5	0.6	0.5
전주	1.3	1.0	1.2	1.1	0.8	0.8
청수	1.3	0.8	1.0	0.7	0.5	0.8
수군	1.1	1.0	0.9	0.9	0.9	0.9
계천	0.9	1.0	0.7	0.5	0.3	0.3
원산	0.8	0.6	1.2	0.5	0.4	0.4
안주	0.8	0.9	0.5	0.4	0.3	0.4
원춘	0.8	0.8	0.6	0.5	0.4	0.4
춘포	0.8	0.9	0.7	0.7	0.3	0.3
김여	0.7	1.1	1.0	0.6	0.4	0.6
진울	0.7	0.5	0.3	0.2	0.1	0.2
이속	0.7	1.0	0.7	0.9	0.4	0.4
강안	0.6	1.0	0.6	0.7	0.4	0.5
충릉	0.6	0.7	1.6	0.7	0.6	0.9
순경	0.6	0.5	0.5	0.3	0.4	0.3
삼의	0.5	0.3	0.6	0.2	0.1	0.1
충진	0.4	0.6	0.4	0.4	0.1	0.3
창안	0.4	0.6	0.4	0.3	0.2	0.3
태영	0.4	0.4	0.3	0.3	0.1	0.2
성계	0.4	0.4	0.3	0.3	0.2	0.3
동정	0.4	0.7	0.5	0.3	0.2	0.3
서동	0.3	0.4	0.3	0.3	0.3	0.3
연광	0.3	0.3	0.3	0.2	0.1	0.1
수송	0.3	0.2	0.3	0.3	0.3	0.3
천명	0.2	0.5	0.5	0.5	0.3	0.3
탕	0.2	0.4	0.5	0.3	0.2	0.2
천양	—	—	—	0.1	0.1	0.2
백주	—	—	0.4	0.5	0.5	0.7
남천	—	—	—	—	0.1	0.1
천주	—	—	—	—	0.2	0.3
천포	—	—	0.5	0.4	0.2	0.3
해천	—	—	—	—	0.5	0.5
명	—	—	—	—	0.3	0.4
평	—	—	—	—	0.1	0.1
송	—	—	—	—	0.1	0.2
수	—	—	—	—	0.2	0.1
송	—	—	—	—	0.1	0.1
수	—	—	—	—	0.1	0.1
송	—	—	—	—	0.1	0.2
수	—	—	—	—	0.1	0.1

김	해	—	—	—	—	0.1	0.1
부	천	—	—	0.2	0.3	0.2	0.8
구	미	—	—	—	0.2	0.2	0.2
남	원	—	—	—	—	0.1	0.1
금	성	—	—	—	—	0.1	—
50	대 도시	77.8	80.5	81.3	85.4	93.8	90.9

년과 1986년에 감소하고 기타년간엔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1979년 및 1982년경엔 10%대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부산은 1976년을 제외한 기타 년도에는 계속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대구도 197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전은 전기간에 걸쳐 감소경향을 나타내며 인천과 광주는 불안정한 변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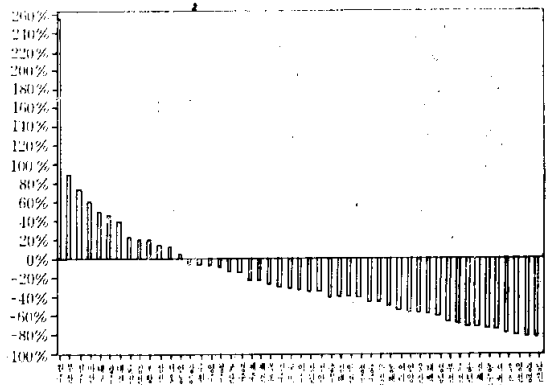
1986년의 50大都市의 小賣店舖占有比는 70.9%에 이르는데 이는 1968년의 60.9%보다 10.0%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都市化의 推移를 반영하고 있다.

1986년의 소매점포점유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로서 25.8%이고, 다음은 부산의 9.2%, 대구 5.4%, 인천 3.6%, 광주 2.5%, 대전 2.3%의 순이다. 1%대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 울산, 마산, 부천, 수원, 전주, 성남 및 청주의 7개 도시이며, 0.5% 이상의 비중을 가진 도시는 안양, 목포, 포항, 진주, 제주, 여수, 군산, 춘천, 이리, 원주, 천안의 11개 도시이다. 가장 비중이 낮은 도시는 0.02%를 차지하는 금성시이다.

1986년의 도매액/소매액(W/R) 비율에 의해 50大都市의 性格을 살펴보면 小賣機能에 비해 상대적으로 都賣機能의 遂行比重이 높은 도시는

원주의 2.5배이며 부산(89.5%), 전주(72.7%), 마산(62.4%), 대구(50.3%), 광주(47.6%), 대전(40.3%), 순천(24.4%), 김천(21.2%), 포항(21.1%), 삼천포(15.1%), 서울(14.3%), 안동(6.1%)의 순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도시는 都賣機能遂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商業都市라기보다는 消費내지 生活都市인 성격이 강한 도시라 할 수 있다. 消費都市 내지 生活都市 성격이 가장 강한 도시는 남원(-81.1%)이고 다음 광명(-80.8%), 연천(-76.5%), 속초(-73.5%), 서귀포(-73.2%), 동두천(-72.0%), 진해

〈도 3〉 유통기능에 따른 都市性格



〈표 9〉 主要都市別 小賣店舖推移

(단위 : 店, %)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소매점포수(전국)	264, 100	320, 471	393, 651	422, 012	542, 548	637, 762
서울	24.7%	24.7%	25.4%	23.8%	26.0%	25.8%
부산	8.7	8.7	8.2	9.1	9.6	9.2
인천	2.5	2.8	3.4	3.4	3.4	3.6
수원	0.8	0.9	0.9	0.9	0.9	1.2
성남	—	—	0.8	0.9	0.9	1.0
의정부	0.5	0.5	0.5	0.4	0.4	0.4
안양	—	—	0.6	0.6	0.8	0.9
부천	—	—	0.4	0.5	0.7	1.2

출원 강속 청 충대 천 전 군 이 광 복 여 순 대 포 경 김 안 마 진 충 진 삼 울 계 구 창 광 동 송 동 태 계 정 남 급 영 연 김 서 소	천	0.7	0.6	0.6	0.6	0.5	0.5
	주	0.5	0.5	0.6	0.5	0.5	0.5
	릉	0.4	0.4	0.3	0.3	0.4	0.4
	초	0.3	0.4	0.3	0.3	0.2	0.3
	주	0.6	0.7	0.8	0.9	0.9	1.0
	주	0.5	0.4	0.4	0.4	0.4	0.4
	전	1.7	1.8	1.8	1.9	2.1	2.3
	안	0.4	0.4	0.4	0.4	0.4	0.5
	주	1.1	1.1	1.0	1.2	1.1	1.1
	산	0.7	0.7	0.6	0.6	0.6	0.6
	리	0.6	0.5	0.5	0.5	0.5	0.5
	주	2.1	1.9	2.3	2.3	2.3	2.5
	포	0.9	0.9	0.7	0.8	0.8	0.7
	수	0.6	0.7	0.6	0.5	0.6	0.6
	천	0.3	0.3	0.4	0.3	0.3	0.4
	구	6.6	6.2	5.3	5.6	5.5	5.4
	항	0.4	0.4	0.5	0.6	0.6	0.7
	주	0.6	0.5	0.5	0.5	0.5	0.4
	천	0.4	0.4	0.4	0.3	0.3	0.2
	동	0.4	0.4	0.4	0.4	0.4	0.3
	산	1.2	1.0	1.1	1.2	1.3	1.3
	주	0.8	0.7	0.7	0.7	0.7	0.7
	무	0.3	0.3	0.3	0.3	0.3	0.3
	해	0.5	0.5	0.3	0.4	0.4	0.3
	포	0.2	0.2	0.2	0.2	0.2	0.2
	산	0.6	0.7	1.0	1.0	1.2	1.4
	주	0.5	0.5	0.5	0.6	0.6	0.6
미	—	—	—	0.3	0.3	0.3	
원	—	—	—	0.1	0.3	0.3	
명	—	—	—	—	0.4	0.4	
천	—	—	—	—	0.3	0.3	
탄	—	—	—	—	0.2	0.2	
해	—	—	—	—	0.3	0.3	
백	—	—	—	—	0.3	0.3	
천	—	—	—	—	0.3	0.3	
주	—	—	—	—	0.2	0.2	
원	—	—	—	—	0.2	0.2	
성	—	—	—	—	0.1	0.0	
주	—	—	—	—	0.3	0.3	
천	—	—	—	—	0.2	0.2	
해	—	—	—	—	0.2	0.2	
포	—	—	—	—	0.3	0.3	
計	60.9	60.8	62.8	63.5	70.1	70.9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2%), 송탄(-70.1%) 등의 순이다.

(6) 從事者規模別店舖推移

중사자규모별점포비중을 보면 1986년의 도매

업의 경우 1~2인 규모가 42.8%, 3~4인 규모가 28.1%이며, 5~9인 규모는 18.7%이고, 10인 이상 규모는 10.3%이다. 이에 대해 소매업

〈표 10〉 유통기능면에서 본 都市의 性格
(1986년기준) (단위: 백만원)

	도매거래액	소매거래액	도소매비율	배율 (%)
計	21,843,942	21,673,830	1.007848	100.0
원	338,443	95,248	3.553281	252.6
부	3,594,280	1,882,276	1.909539	89.5
정	475,885	273,394	1.740656	72.7
마	502,588	306,995	1.637121	62.4
대	1,870,850	1,235,416	1.514348	50.3
광	966,943	649,909	1.487812	47.6
대	862,367	609,778	1.414231	40.3
순	105,514	84,184	1.253373	24.4
김	57,469	47,049	1.221471	21.2
포	234,908	192,427	1.220764	21.1
삼	38,485	33,176	1.160025	15.1
천	8,708,152	7,561,494	1.151644	14.3
울	102,539	95,850	1.069786	6.1
동	98,966	103,126	0.959660	-4.8
강	276,912	292,340	0.947225	-6.0
수	52,431	56,090	0.934765	-7.3
영	204,165	219,065	0.931983	-7.5
청	96,390	108,384	0.889337	-11.8
군	74,324	85,971	0.864524	-14.2
경	128,443	162,486	0.790486	-21.6
계	56,226	72,236	0.778365	-22.8
목	91,353	126,355	0.722986	-28.3
진	101,325	142,650	0.710304	-29.5
구	46,693	67,239	0.694433	-31.1
여	64,719	96,922	0.667743	-33.7
수	38,636	58,354	0.662096	-34.3
원	69,780	105,718	0.660057	-34.5
창	37,388	61,977	0.603256	-40.1
천	23,548	39,098	0.602281	-40.2
총	557,253	937,775	0.594228	-41.0
김	23,631	39,910	0.592107	-41.3
인	42,363	77,365	0.547573	-45.7
정	62,433	115,125	0.542306	-46.2
총	21,400	43,342	0.493747	-51.0
의	50,867	109,319	0.465307	-53.8
동	109,737	237,129	0.462773	-54.1
이	150,786	330,118	0.456763	-54.7
안	26,046	57,868	0.450093	-55.3
울	95,768	221,362	0.432630	-57.1
태	78,421	211,318	0.371104	-63.2
성	62,867	186,931	0.336311	-66.6
남	13,878	46,106	0.301002	-70.1
천	14,209	47,284	0.300503	-70.2
부	16,735	59,261	0.282394	-72.0
춘				
송				
진				
동				
해				
천				

서	귀	포	15,755	58,296	0.270258	-73.2
속	초		12,091	45,225	0.267352	-73.5
연	천		6,229	26,291	0.236925	-76.5
광	명		15,100	78,072	0.193411	-80.8
남	원		13,681	71,676	0.190872	-81.1

의 경우는 1~2인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89.7%이며 3~4인 규모는 7.2%, 5~9인 규모는 2.1%, 10인 이상 규모는 0.9%로서 1%에도 못 미친다.

構成比의 변화를 보면 도매업의 경우 1~2인 규모는 1968년 이래 1976년까지는 비중이 늘었으나 1979년엔 10.1%포인트나 낮아진 38.1%가 되었다가 다시 1982년에는 16.5%포인트가 증가되어 54.6%에 이른 다음 1986년에는 11.8%포인트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10인 이상의 규모는 1968년의 4.8%에서 1979년엔 0.9%포인트가 낮아진 3.9%를 접하였다가 1976 및 1979년에 각각 8.1%를 접하였으나 1982년에는 2.1%포인트가 낮아진 6.0%를 접하였다가 1986년엔 10.3%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매업의 경우 1~2인 규모는 1968년의 87.7%에서 1971년엔 0.4%포인트가 낮아진 87.3%로 된 다음 1976 및 1979년엔 89%대로 늘어났고 1982년에는 2.7%포인트가 높아진 92.6%로 늘어난 다음 1986년에는 2.8%포인트가 낮아진 89.7%에 이

〈표 11〉 規模別 店舖推移 (단위: 店, %)

	총 수	1~2인	3~4인	5~9인	10인~
도매업					
1968	13,193	43.4%	36.9%	14.9%	4.8%
1971	16,429	44.4	37.4	14.3	3.9
1976	20,260	48.2	29.4	14.3	8.1
1979	23,835	38.1	32.7	21.1	8.1
1982	45,568	54.6	26.3	13.1	6.0
1986	68,760	42.8	28.1	18.7	10.3
소매업					
1968	264,100	87.7%	11.0%	1.2%	0.1%
1971	320,471	87.3	10.9	1.6	0.1
1976	393,651	89.3	8.9	1.5	0.4
1979	422,012	89.9	8.2	1.5	0.4
1982	542,458	92.6	5.5	1.3	0.5
1986	637,762	89.7	7.2	2.1	0.9

〈표 12〉 規模別 店舖數 增加寄與率(1968~1986)

規 模	도 매 업	소 매 업
1~2人	42.8%	89.7%
3~4人	28.1	7.2
5~9人	18.7	2.1
10人 이상	10.3	0.9
計	100.0	100.0

르고 있다.¹⁾

1968~1986년 간의 店舖增加寄與率면에서 보면 도매업의 경우 1~2人 규모가 42.8%, 3~4人 규모가 28.1%, 5~9人 규모가 18.7%, 10人 이상 규모가 10.3%이어서 店舖規模의 擴大推移를 엿볼수 있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에는 1~2人 규모가 무려 89.7%이고 3~4人 규모는 7.2%, 5~9人 규모가 2.1%, 10人 이상 규모가 0.9% 밖에 되지 않아 小賣店舖의 확대가 1~2人 규모의 零細店의 開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 業種別 店舖推移

1986년의 도매업의 산업세분류에 따른 업종별 점포비중을 보면 농산물, 음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아 24.1%이며 다음은 21.4%의 섬유, 의류업이고 기계 및 장비업이 9.8%, 의약, 화학제품이 9.1%, 철물, 가정용기구가 7.2%, 건축재료 4.3%, 금속, 광물이 3.3%, 운송장비도매업이 2.6%이다.

1968~1986년 간의 점포수증가기여율을 보면 섬유, 의류업이 22.7%로 가장 높고 다음이 농산물, 식품업의 20.6%이다. 10%대의 기여를 한 업종은 기계 및 장비류(10.4%)와 의약, 화학제품(10.0%)이며 철물, 가정용기구는 8.6%의 기여를 하고 있고²⁾ 건축재료는 4.7%, 금속, 광물 재료는 2.0%이다.³⁾

구성비변화를 보면 농수산물, 식품의 변동이 심하여 1986년에 1.2%포인트가 높아진 이외의 1968~1982년간엔 계속하여 점유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 1986년의 店舖比率이 가장 높은 업종은 식품, 담배소매업의 47.2%이고 다음은 섬유의복, 장신구소매업의 15.9%, 화장품, 의약품소매업 7.5%, 가구, 건구, 집기소매업이 6.5%, 종이, 서적, 문방구소매업 6.0%, 가정용연료소매업 2.7%, 기계기구소매업 1.7%, 연료, 유류소매업 1.3%, 종합소매업이 1.1%(백화점 0.3%, 슈퍼마켓 0.8%), 기타 소매업이 8.8%이다.

1968~1986년 간의 店舖增加寄與率을 보면 食品, 飲料小賣業이 압도적이어서 56.7%이고 다음이 섬유소매업의 16.0%, 의약, 화장품소매업이 10.4%, 서적문방구소매업이 9.1%, 가구, 건구, 집기소매업이 8.5%, 연료, 유류소매업 4.2% 등이 正의 寄與를 하였으며 기계기구소매

〈표 13〉 業種別 都賣店舖推移

(단위 : 店, %)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指數 (86/68)	寄與率 (86/68)
총 점 포 수	13,193	16,429	20,260	23,835	45,568	68,760		
농산물·음식료품	41.5%	39.6%	35.0%	29.1%	22.8%	24.1%	83.9%	20.6%
섬유·의복·장신구	19.1	26.8	9.8	21.5	29.7	21.4	92.7	22.7
의약품·화학제품	6.6	4.2	10.3	9.4	8.1	9.1	40.8	10.0
기 계 기 구	8.5	9.0	8.3	10.7	9.0	9.8	42.4	10.4
철 물 · 가 구	2.3	2.3	2.9	4.4	2.9	7.2	35.2	8.6
건 축 재 료	3.4	3.7	6.3	3.8	3.4	4.3	19.0	4.7
금 속 · 광 물 재 료	9.1	3.1	3.4	6.1	6.0	3.3	8.0	2.0
운 송 기 기	—	—	—	—	—	2.6	—	—
기 타	9.6	11.2	23.9	15.0	18.2	18.3	85.6	21.0

1) 1~2人 규모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52.0%(1977년), 일본은 62.9%(1976년), 프랑스는 71.6%(1972년)이다. (ibid., p.94)

2) 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가구류만의 計數임.

3) 1968~1982년분은 철물포함.

〈표 14〉 業種別 小賣店舖推移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指數	寄與率
음 식 · 담 배	48.9%	50.4%	50.5%	52.3%	44.1%	47.2%	135.8%	56.7%
섬 유 · 의 복	20.1	20.3	15.3	18.0	16.0	15.9	93.2	16.0
철물 · 가 구 · 건 구	6.1	5.2	3.7	5.8	4.1	6.5	163.4	8.5
의 약 · 화 장 품	6.1	5.2	4.9	4.7	4.7	7.5	198.7	10.4
시 계 · 장 신 구	5.8	5.4	1.9	2.5	1.8	1.7	-30.0	-1.5
종 이 · 문 구	4.0	4.5	3.6	4.4	5.3	6.0	263.8	9.1
연 료 · 주 유 소	1.8	2.1	4.9	2.6	1.5	1.3	78.4	1.2
가 경 용 연 료	7.1	6.7	15.0	9.3	3.2	2.7	-6.1	-0.4
기 타	—	0.0	0.2	0.2	18.1	8.8	—	—
중 합 소 매 업	—	0.0	0.0	0.0	0.5	1.1	—	—
백 화 점	—	0.0	0.0	0.0	0.5	0.3	—	—
수 피 마 켓	—	0.0	0.0	0.0	0.0	0.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업(-1.5%)과 가정용연료소매업(-0.4%)이 負의 寄與를 하고 있다.

3. 從事者數의 推移

(1) 從事者 및 1店當從事者數의 推移

1986년의 유통산업에의 총 종사자수는 237만 3,795명인데 그 중 65.9%인 156만 3,811명은 도소매업(도매업 14.4%, 소매업 51.4%), 34.1%인 80만 9,984명은 음식, 숙박업(음식업 29.9%, 숙박업 4.3%)에 종사하고 있다.

18년간의 年平均從事者增加率을 보면 도매업은 34.3%증이며, 소매업은 14.9%증, 음식업은 18.2%증, 숙박업은 16.7%증이다.

1店當平均從事者數는 1986년의 경우 도매업은 5.0人, 소매업은 1.9人, 음식업은 2.7人, 숙박업은 3.4人이다. 도매업의 경우 1968년에 對比

할 때 1971년과 1982년엔 89% 및 90%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1976 및 1979년에는 110%와 116%로 평균 규모가 확대되었고 1986년에는 119%의 수준으로 종업원규모가 커지고 있다. 소매업은 1968년의 수준을 上廻하는 증가추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소매업의 규모확대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음식업은 1982년에 97%의 수준으로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역시 확대추이를 나타내며 숙박업은 1971년에 81%의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역시 1968년의 수준을 上廻하는 확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 性別 및 就業形態別 推移

1968~82년간의 평균 성별취업비중을 보면 도매업은 남자가 72.4%이고 여자는 27.6%이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에는 남자의 그것은 54.4%인데 여자의 그것은 45.6%로서 여성의 소매업에의 취업비중이 도매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표 15〉 總從事者數 推移

(단위 : 人)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86/68	1店當從事者數
계	761,803	962,868	1,093,487	1,362,847	1,719,345	2,373,795	3.1	2.4
도매	7.3%	6.4%	8.6%	8.6%	10.1%	14.4%	6.2	5.0
소매	60.0	60.4	63.4	56.1	55.0	51.4	2.7	1.9
음식업	28.3	28.3	23.4	30.0	30.3	29.9	3.3	2.7
숙박업	4.4	4.9	4.6	5.3	4.6	4.3	3.0	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표 16〉 性別 從事者 推移

(단위 : 人)

年 度	都 賣			小 賣		
	從 事 者 數	男	女	從 事 者 數	男	女
1968	60,394	78.5%	21.5%	482,272	58.6%	41.4%
1971	61,349	75.1	24.9	581,174	53.9	46.1
1976	93,679	67.0	33.0	693,459	54.1	45.9
1979	116,609	69.2	30.8	765,180	51.2	48.8
1982	173,156	68.9	31.1	945,778	50.6	49.4
1986년	342,522	—	—	1,221,289	—	—
1968~82(평균)		72.4	27.6		54.4	45.6

〈표 17〉 就業形態別 從事者 推移

(단위 : 人)

年 度	總 數	自 營 業 主	常 時 從 事 者	日 雇	無 給 從 事 者
(도매업)					
1968	60,394	33.0%	57.8%	9.3%	—
1971	61,349	43.4	49.5	7.0	—
1976	93,679	—	—	—	—
1979	116,609	29.1	65.2	6.1	—
1982	173,156	35.1	54.1	2.2	8.6%
1986년	342,522	24.6	62.8	5.2	7.4
(소매업)					
1968	482,272	81.8	13.0	5.3	—
1971	581,174	85.1	10.5	4.4	—
1976	693,459	—	—	—	—
1979	765,180	84.3	14.7	1.0	—
1982	945,778	81.6	14.9	0.9	2.6
1986년	1,221,289	76.1	19.3	2.2	2.4

* 1982년분 無給者는 판매원 포함임.

1968~82년을 전제로 할 때 도소매 양업중에서의 여성의 취업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었보이는데 도매업의 경우 1968년엔 21.5%이던 것이 1982년엔 31.1%로 9.6%포인트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소매업의 경우에도 41.4%에서 49.4%로 8.0%포인트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就業形態면에서 보면 1986년의 도매업의 경우 自營業主는 24.6%이고 상시종업원은 62.8%, 臨時 및 日雇는 5.2%, 無給從事者가 7.4%이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자영업주가 압도적으로 많아 76.1%를 점하며 상시종업원은 19.3%, 임시 및 일고가 2.2%, 무급종사자가 2.4%이다.

이에서 미루어 都賣業의 경우에는 企業化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나 소매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家族勞動에 의존하는 自營店舖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業種別 1店當從事者의 推移

店舖規模를 반영하는 1店當從事者數를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의 경우 1986년은 평균 5.4인이다. 이는 1968년의 4.4인에 비하면 1.2人增이다. 1968년에 대비할 때 모든 업종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1.9人增의 농산물, 식품도매업이다. 1986년 평균에 대비할 때 이를 上廻하는 업종은 의약, 화장품이 1.7人으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농산물, 음식료품 및 금속, 광물의 1.1人이며 건축재료와 수송기기는 1.0人이다. 이 중 가장 낮은 업종은 섬유, 의복업종

〈표 18〉 業種別 1店當 從事者數

(단위:人)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1968대비 증 감	평균대비 (1986년)
(도 매 업)								
농산물·음식료품	3.1	3.2	3.9	5.6	5.1	5.8	1.9	1.1
섬유·의복·장신구	4.0	2.8	4.0	3.0	2.2	2.6	0.7	0.5
의약·화학제품	7.1	6.5	9.4	8.5	7.4	9.0	1.3	1.7
기계기구	5.9	3.5	4.6	4.9	3.7	5.0	0.9	0.9
철물·가구	4.9	4.7	5.1	5.4	3.6	4.8	1.0	0.9
건축재료	5.7	4.4	4.3	5.7	4.2	5.4	0.9	1.0
금속·광물재료	5.3	7.1	4.5	5.2	4.3	6.0	1.1	1.1
운송기기	—	—	—	—	—	5.2	—	1.0
기타	3.7	3.5	4.0	3.5	3.1	4.4	1.2	0.8
평균	4.4	4.0	4.4	4.6	3.7	5.4	1.2	1.0
(소 매 업)								
음식·담배	1.6	1.6	1.6	1.7	1.6	1.6	1.0	0.6
섬유·의복	1.9	2.1	1.8	1.8	1.8	1.7	0.9	0.6
철물·가구·전구	1.9	2.1	2.2	2.4	2.1	2.6	1.4	0.9
의약·화장품	1.6	1.7	1.9	1.9	2.3	1.7	1.1	0.6
시계·장신구	1.9	2.0	2.0	2.0	—	1.7	0.9	0.6
종이·문구	1.7	1.7	1.7	1.8	2.1	2.9	1.7	1.1
연료·주유소	1.8	2.2	1.9	2.4	6.2	8.0	4.4	2.9
가정용연료	0.0	0.0	0.0	0.0	0.0	—	—	—
기타	—	—	166.3	102.2	1.7	2.0	—	0.7
종합소매업	—	—	—	—	8.3	6.9	—	2.5
백화점	—	—	—	—	—	217.2	—	78.0
수퍼마켓	—	—	—	—	—	7.4	—	2.7
기타 종합소매업	—	—	—	—	—	2.8	—	1.0
평균	1.4	1.5	19.9	12.9	2.9	3.2	—	—

으로서 50%의 수준이다. 이에서 미루어 섬유, 의류업종의 零細性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1986년에는 3.2인인데 이 중 대형소매점인 백화점의 217.2인을 포함하는 종합소매업을 제외하여 보면 평균 2.8인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업¹⁾이 2.9인, 종이·인쇄물·문구용품업이 1.1인으로 평균을 上廻할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보다 낮다.

종합소매업은 전체로서 6.9인이나 백화점은 217.2인, 수퍼마켓은 7.4인 기타 종합소매업은 2.8인이다. 1968년에 대비할 때 수송장비 및 주유소업이 6.2인增, 종이·인쇄물·문구용품이

1.2인增, 가구·철물·가정용품소매업²⁾이 0.7인增, 의약·화장품 기타 화장품이 0.1인增이고 나머지 업종인 섬유·의류업종(0.2인減), 농산물·식품업종(0.01인減), 장신구 및 시계소매업³⁾(0.1인減)은 감소하고 있다.

4. 年間販賣額의 推移

(1) 總年間販賣額의 推移

經常價格으로 본 1986년의 流通産業(廣義)의 總年間 販賣額은 49조 738억 6천 5백만원으로서 이 중 88.7%인 43조 5,177억 7천 2백만원은 협의의 유통거래액인 도소매거래액이며 11.3%인

1) 1968~1982년간은 유류, 연료, 가정용연료소매업을 포함함.

2) 1968~1982년분은 가구뿐임.

3) 1968~1982년분엔 기계기구 포함함.

〈표 19〉 年間 販賣額의 推移

(단위 : 백만원)

	총액	도매	소매	음식업	숙박업
1968	492,475	183,902	243,404	56,024	9,145
1971	1,171,683	417,990	607,958	123,337	22,398
1976	6,272,764	2,448,662	3,310,255	429,512	84,335
1979	12,988,405	3,851,343	7,187,050	1,676,380	273,632
1982	22,832,547	7,086,020	12,655,471	2,615,991	475,065
1986년	49,073,865	21,843,942	21,673,830	4,644,202	911,891
1968	100.0%	37.3%	49.4%	11.4%	1.9%
1971	100.0	35.7	51.9	10.5	1.9
1976	100.0	39.0	52.8	6.8	1.3
1979	100.0	29.7	55.3	12.9	2.1
1982	100.0	31.0	55.4	11.5	2.1
1986년	100.0	44.5	44.2	9.5	1.9

〈표 20〉 都小賣 販賣額의 推移

(단위 : 백만원)

	經 常			實 質 (85=100)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1968	427,306	183,902	243,404	34,828	14,712	20,116
1971	1,025,948	417,990	607,958	60,419	26,455	33,964
1976	5,758,917	2,448,662	3,310,255	152,576	63,110	89,466
1979	11,038,393	3,851,343	7,187,050	199,088	68,651	130,436
1982	19,741,521	7,086,050	12,655,471	209,272	72,159	137,112
1986년	43,517,772	21,843,942	21,673,830	432,601	221,766	210,835
86/68	101.84	118.78	89.04	12.42	15.07	10.48
년평균성장률	—	—	—	69.0%	83.7%	58.2%

5조 5,560억 9천 3백만원은 음식숙박업의 거래액이다. 총년간판매액 중 44.5%가 도매거래액이며 44.2%는 소매거래액, 9.5%는 음식점판매액이고 1.9%는 숙박업판매액이다.

經常으로 볼 때 1986년의 도매거래액은 1968년에 대비할 때 118.8배, 소매거래액은 89.0배, 음식점업은 82.9배, 숙박업은 99.7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1985년을 기준으로 한 實質로 보면 도매거래액은 15.1배, 소매거래액은 10.5배로 늘어 나고 있다. 사실상 實質에 의한 국민총생산의 같은 기간동안의 增加倍率이 18배임에¹⁾ 무루어 流通産業의 擴大推移를 짐작할 수 있다.

(2) 流通迂回比率의 推移

經常으로 본 流通迂回比率 즉 都賣/小賣 販賣

〈표 21〉 流通迂回比率의 推移

년도	經 常		實 質 (85=100)	
	比率	倍率	比率	倍率
1968	0.76	1.00	0.73	1.00
1971	0.69	0.91	0.78	1.07
1976	0.74	0.98	0.71	0.96
1979	0.54	0.71	0.53	0.72
1982	0.56	0.74	0.53	0.72
1986년	1.01	1.33	1.05	1.44

額比率는 1986년에는 1.01이다. 이의 推移를 보면 1968년의 0.76에서 1971년에는 0.69로 낮아졌다가 1976년에는 急增하여 0.74에 이른 다음 다시 낮아져서 1979년에는 0.54, 1982년에는 0.56으로 낮아진 다음 1986년에는 1.01로 증대

1)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主要海外經濟指標, 1988, p.16에 의함.

하는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¹⁾

實質로 보면 1986년엔 1.05인데 그 推移는 1968년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는 70%수준이고 1970년대말 이후 1982년까지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1986년에 반등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都賣業의 安定性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자료수집시의 分類의 잘못 때문이라 思料된다.

(3) 地域別 年間 販賣額 推移

1986년의 經常에 따른 地域別都賣販賣 占有比重을 보면 서울이 39.9%이고, 부산 16.5%, 대구 8.6%, 충남 5.7%, 경남 4.6%, 광주 4.4%, 경기 4.4%, 경북 및 전북 각각 3.2%, 강원 3.0%, 인천 2.6%, 전남 1.8%, 충북 1.6%, 제주 0.7%의 순이다.

1968년에 대비하여 占有比가 증대한 지역은 부산 2.9%, 경남 1.1%, 충남 1.0%, 경기 0.2%, 제주 0.1%의 순이며 충북은 0.1%減, 강원

<표 22> 地域別 年間 販賣額 推移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비율증감 (68~86)
(도 매 업)							
서울	45.1%	29.7%	59.3%	48.1%	43.7%	39.9%	-5.3%
부산	13.6	10.5	11.8	13.9	14.3	16.5	2.9
대구	—	—	—	—	5.0	8.6	—
인천	—	—	—	—	2.2	2.6	—
광주	—	—	—	—	—	4.4	—
경기	4.2	4.9	4.4	5.9	4.9	4.4	0.2
강원	4.3	3.0	2.2	2.3	4.0	3.0	-1.3
충북	1.7	3.8	1.8	2.1	1.4	1.6	-0.1
충남	4.7	8.6	4.8	4.7	6.0	5.7	1.0
전북	4.6	5.2	3.2	2.6	2.6	3.2	-1.4
전남	6.4	6.9	5.6	6.1	9.2	1.8	-4.7
경북	11.9	21.7	6.6	9.8	3.3	3.2	-8.7
경남	3.5	5.6	3.3	4.5	4.4	4.6	1.1
제주	0.6	0.7	0.8	0.5	1.1	0.7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 매 업)							
서울	39.9	35.0	38.4	30.8	41.0	34.9	-5.0
부산	9.5	10.9	10.6	10.9	8.8	8.7	-0.8
대구	—	—	—	—	5.4	5.7	—
인천	—	—	—	—	2.6	4.3	—
광주	—	—	—	—	—	3.0	—
경기	7.9	9.2	9.2	13.1	7.6	10.2	2.3
강원	3.7	4.0	3.6	4.3	3.1	3.9	0.2
충북	2.4	3.5	2.8	3.4	2.6	2.6	0.2
충남	6.1	5.6	6.0	6.6	6.4	6.2	0.1
전북	4.4	6.1	4.2	4.8	3.7	3.8	-0.5
전남	6.7	7.4	6.4	6.7	7.2	3.6	-3.0
경북	15.1	13.3	9.7	13.2	5.3	5.1	-10.1
경남	4.5	4.9	9.0	6.3	6.4	6.7	2.2
제주	0.8	0.7	1.3	1.1	1.0	1.2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미국 1.75(1977년), 프랑스 1.24(1977년), 서독 1.84(1976년), 일본 3.98(1976년)이다. (ibid., p.127)

1.3%減, 전북 1.4%減, 전남 4.7%減, 서울 5.3%減, 경북 8.7%減의 순이다. 전남과 경북의 占有比의 감소는 대구와 광주가 별도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서울 34.9%, 경기 10.2%, 부산 8.7%, 경남 6.7%, 충남 6.2%, 대구 5.7%, 경북 5.1%, 인천 4.3%, 강원 3.9%, 전북 3.8%, 전남 3.6%, 광주 3.0%, 충북 2.6%, 제주 1.2%의 순이다.

1968년에 대비한 小賣販賣額의 占有比를 보면 首都圈域의 확대를 반영하여 경기의 2.3%增이 가장 높고 다음이 경남의 2.2%增, 제주의 0.5%增, 강원 및 충북 각각 0.2%增, 충남 0.1%增의 순이다. 비중이 감소된 지역은 전북 0.5%

減, 부산 0.8%減, 전남 3.0%減, 서울 5.0%減, 경북의 10.1%減이다.

이에서 미루어 서울 및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는 小賣飽和傾向이 생기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4) 業種別 年間販賣額 推移

1986년의 業種別 都賣去來額比重을 보면 농산물·음식료품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 28.8%를 점하며 다음이 의약품·화학제품의 24.5%이며 섬유·의류·장신구업 8.3%, 기계 및 장비 7.8%, 철물·가정용기구 6.9%, 금속·광물 6.8%, 건축재료 5.3%, 운송장비 4.2%이다.

1968년에 대비하여 판매액비중이 증대한 업종은 의약품·화학제품의 10.3%가 가장 높으며 다음은 금속·광물의 5.5%이며 기타 업종의 비

<표 23> 業種別 年間 販賣額 推移

(단위: 백만원)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 변화 (68~86)
(도매업)							
총 판매액	183,902	417,990	2,448,662	3,851,343	7,086,020	21,843,942	
농산물·음식료품	31.6%	35.7%	29.6%	35.3%	37.0%	28.8%	-2.8%
섬유·의복·장신구	13.6	18.6	9.8	10.5	12.0	8.3	-5.3
의약품·화학제품	14.2	6.9	10.0	20.9	21.9	24.5	10.3
기계기구	16.8	11.9	4.5	6.8	7.5	7.8	-9.0
철물·가구	11.4	3.7	9.9	8.7	7.1	6.9	-4.5
건축재료	6.6	16.5	12.2	5.8	4.0	5.3	-1.3
금속·광물재료	1.3	2.9	2.7	3.5	1.8	6.8	5.5
운송기기	—	—	—	—	—	4.2	—
기타	4.4	3.8	21.3	8.6	8.8	7.4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매업)							
총 판매액	243,404	607,958	3,310,255	7,187,050	12,655,472	21,673,830	
음식·담배	33.8%	37.3%	37.6%	36.3%	27.7%	28.2%	-5.7%
섬유·의복	25.7	22.7	14.6	18.7	13.8	10.9	-14.7
철물·가구·기구	7.5	7.0	6.6	12.2	9.0	11.8	4.3
의약품·화장품	6.7	6.5	8.5	6.2	6.7	7.2	0.5
시계·장신구	8.6	10.2	2.3	3.4	—	1.5	-7.0
종이·문구	2.8	2.7	2.3	3.0	4.2	4.3	1.4
연료·주유소	3.0	4.4	11.3	9.1	19.2	17.9	14.9
가정용연료	—	—	—	—	—	—	—
기타	11.9	9.3	13.4	9.8	11.7	7.0	-4.9
종합소매업	—	—	3.4	1.4	7.7	11.2	—
백화점	—	—	—	—	—	4.3	—
수퍼마켓	—	—	—	—	—	4.1	—
기타 종합소매업	—	—	—	—	—	2.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비중감소가 가장 현저한 업종은 9.0%減의 기계 및 장비이다.¹⁾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음식료품 및 담배판매업의 비중이 가장 많아 28.2%를 점하며 다음은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업이 17.9%²⁾, 가구·철물 및 가정용품소매업 11.8%, 종합소매업 11.2%(백화점 4.3%, 슈퍼마켓 4.1%), 섬유·의복·신발·장신구 소매업 10.9%, 의약품·화학제품 7.2%, 종이·인쇄물·문구소매업 4.3%, 장신구 및 시계소매업 1.5%이다.

1968년에 대비할 때 占有比重이 늘어난 업종은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의 경향을 반영하여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업의 비중이 14.9%가 신장되었으며 가구·철물 및 가정용품소매업은 4.3%, 종이·인쇄물·문구용품소매업이 1.4%, 의약품·화학제품이 0.5% 증대되고 있다. 기타 업종은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데 가장 현저한 업종은 섬유·의복·신발·장신구소매업의 14.7%減이다.

1982년까지의 도소매업센서스에서는 別褐조차 하지 않던 종합소매업의 細分業種인 백화점과 수

퍼마켓에 관한 자료가 1986년에 이르러 公開된 양업태의 占有比重이 각각 4.3%와 4.1%로서 8.4%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은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는 小賣業態의 大型化傾向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

중업원규모에 따른 1986년의 도매판매액의 점유비중을 보면 10인 이상의 대규모의 占有比重이 가장 높아 57.0%이며, 다음은 5~9인 규모의 22.4%이며, 3~4인 규모는 12.4%, 1~2인의 영세규모의 占有比重은 8.2%이다.

1968년에 대비할 때 10인 이상 규모의 점유비는 16.1%가 증대되었고, 5~9인 규모는 1.1% 증이며, 3~4인 규모와 1~2인 규모의 소규모점의 占有比重은 각각 10.1%와 7.1%가 감소되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1~2인 규모의 점유비중이 가장 높아 48.6%에 이르며 다음은 10인 이상 규모의 22.6%, 5~9인 규모는 14.7%, 3~4인 규모는 14.0%이다. 1968년에 대비할 때 10인 이상 규모 및 5~9인 규모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매점의 점유비중은 17.9%와 8.7%

〈표 24〉 從事者規模別 年間販賣額 推移

(단위 : 백만원)

	총 판 매 액	1~2인	3~4인	5~9인	10인 이상	계
(도 매 업)						
1968	183,902	15.3%	22.5%	21.3%	40.9%	100.0%
1971	417,990	19.1	26.1	25.2	29.5	100.0
1976	2,448,662	13.5	16.9	21.9	47.8	100.0
1979	3,851,343	9.7	15.7	23.1	51.5	100.0
1982	7,086,050	14.5	15.5	22.0	47.9	100.0
1986년	21,843,942	8.2	12.4	22.4	57.0	100.0
86/68(%變化)		-7.1	-10.1	1.1	16.1	
(소 매 업)						
1968	243,404	64.6	24.7	6.0	4.8	100.0
1971	607,958	71.5	20.0	5.6	2.9	100.0
1976	3,310,256	64.5	18.8	8.2	8.5	100.0
1979	7,187,050	62.5	17.2	10.3	9.9	100.0
1982	12,655,472	—	—	—	—	—
1986년	21,673,830	48.6	14.0	14.7	22.6	100.0
86/68(%變化)		-16.0	-10.6	8.7	17.9	

- 1) 앞에서 보았듯이 業種分類基準의 변경으로 통계의 계속성이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을 留念할 필요가 있다.
- 2) 이에는 가정용품료소매업이 포함됨.

〈표 25〉 事業場 面積別 年間販賣額 推移(1986년)

면적 규모	년간판매액 (백만원)	점포수 (店)	종사원수 (人)	판매액비중 (%)	점포비중 (%)	종사원비중 (%)
(도매업)						
~ 10m ²	4,456,769	41,373	122,824	20.4	60.2	35.9
10~20	3,040,827	13,624	72,063	13.9	19.3	21.0
20~30	1,903,826	5,353	36,453	8.7	7.8	10.6
30~50	2,532,409	4,002	33,941	11.6	5.8	9.9
50~100	3,753,508	2,637	31,601	17.2	3.8	9.2
100~200	2,799,892	1,189	20,807	12.8	1.7	6.1
200~300	950,204	263	7,231	4.3	0.4	2.1
300m ² ~	2,406,507	319	17,602	11.0	0.5	5.1
계	21,843,942	68,760	342,522	100.0	100.0	100.0
(소매업)						
~ 10m ²	9,717,149	514,556	835,070	44.8	80.7	68.4
10~20	3,748,583	87,536	205,227	17.3	13.7	16.8
20~30	1,694,762	18,332	61,322	7.8	2.9	5.0
30~50	1,872,738	10,146	44,657	8.6	1.6	3.7
50~100	1,838,640	5,045	30,210	8.5	0.8	2.5
100~200	1,085,168	1,323	14,296	5.0	0.2	1.2
200~300	333,567	252	5,005	1.5	0.0	0.4
300m ² ~	1,383,222	272	25,502	6.4	0.0	2.1
계	21,673,830	637,762	1,221,289	100.0	100.0	100.0

〈표 26〉 판매효율의 推移

(단위 : 백만원)

년 도	經 常				實 質 (85=100)			
	도매	소매	음식업	숙박업	도매	소매	음식업	숙박업
(1점당 판매액)								
1968	13.9	0.9	0.7	0.9	2.987	0.058	0.242	0.379
1971	25.4	1.9	1.3	1.4	4.514	0.073	0.350	0.485
1976	120.9	8.4	4.5	3.6	7.980	0.168	0.920	0.515
1979	161.6	17.0	12.4	11.2	9.714	0.166	0.967	1.225
1982	155.5	23.3	12.6	17.8	5.102	0.142	0.662	0.996
1986년	317.7	34.0	17.9	31.0	7.246	0.333	0.813	1.605
86/68(배)	22.8	36.9	27.0	36.4	2.4	5.8	3.4	4.2
(1인당 판매액)								
1968	3.3	0.5	0.3	0.3	0.711	0.033	0.093	0.132
1971	6.8	1.0	0.5	0.5	1.209	0.040	0.124	0.165
1976	26.1	4.8	1.7	1.5	1.726	0.095	0.350	0.221
1979	33.0	9.4	4.1	3.8	1.985	0.091	0.319	0.415
1982	40.9	13.4	5.0	6.0	1.343	0.081	0.263	0.338
1986년	63.8	17.7	6.6	9.0	1.455	0.174	0.297	0.466
86/68(배)	19.2	33.3	25.6	30.4	2.0	5.2	3.2	3.5

<표 27> 規模別 販賣效率의 推移—1店當 販賣額

(단위: 백만원)

	經 常					實 質				
	1~2人	3~4人	5~9人	10人 이상	계	1~2人	3~4人	5~9人	10人 이상	계
(도매업)										
1968	4.8	8.4	19.7	116.5	13.7	0.4	0.7	1.6	9.3	1.1
1971	11.0	17.7	45.0	192.3	25.4	0.7	1.1	2.8	12.2	1.6
1976	33.9	69.2	185.6	708.7	120.9	0.9	1.8	4.8	18.3	3.1
1979	41.0	77.7	176.8	1027.0	161.6	0.7	1.4	3.2	18.3	2.9
1982	41.4	92.1	260.8	1238.5	155.6	0.4	0.9	2.7	12.6	1.6
1986	60.9	140.4	379.4	1732.7	317.7	0.6	1.4	3.9	17.8	3.2
1968년 대비(배)	12.6	16.8	19.3	15.0	—	1.6	2.1	2.4	1.9	—
평균 대비(배)	0.2	0.4	1.2	5.5	1.0	0.2	0.4	1.2	5.5	1.0
10인이상규모대비	3.5%	8.0%	21.6%	100.0%						
(소매업)										
1968	0.6786	2.0584	4.7520	50.3522	0.9216	0.1	0.2	0.4	4.2	0.1
1971	1.5546	3.4658	6.4760	36.9748	1.8971	0.1	0.2	0.4	2.1	0.1
1976	6.0773	17.8405	47.0600	197.0176	8.4091	0.2	0.5	1.3	5.3	0.2
1979	11.8454	35.9164	114.7008	444.1719	17.0304	0.2	0.7	2.1	8.1	0.3
1982	—	—	—	—	—	—	—	—	—	—
1986	18.4	66.1	233.2	861.2	34.0	0.2	0.6	2.3	8.4	0.3
1968년 대비(배)	27.12	32.13	49.08	17.10	36.9	3.2	3.8	5.8	2.0	—
평균 대비(배)	0.5	1.9	6.9	25.3	1.0					
10인이상규모대비	2.1%	7.7%	27.1%	100.0%						

가 증대되었으나 1~2인 규모와 3~4인 규모는 각각 16.0%와 10.6%가 감소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도소매업 모두 大規模店舖의 販賣額占有比重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점포의 고객흡인력이 높아 가고 있음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1986년의 자료를 전제로 大型化의 실태를 살펴보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면적 10m² 이하의 점포는 20.4%를 점하며 50~100m² 규모는 17.2%, 다음은 13.9%의 10~20m² 규모이다. 50m²을 기준으로 하여보면 50m² 이하의 규모의 占有比重은 54.6%이며 50m² 이상 규모는 45.4%이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10m² 이하의 규모의 점유비중이 가장 높아 44.8%이며 다음이 17.3%의 10~20m² 규모이다. 역시 50m²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보면 50m² 이하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점포의 비중이 78.6%를 점하며 50m² 이상 규모의 그것은 21.4%이다.

5. 販賣效率의 推移

(1) 平均販賣效率의 推移

經常으로 본 1986년의 1店當販賣額을 보면 도매업은 3억 1천 7백 70만원이고 소매업은 3천 4백만원, 음식업은 1천 7백 90만원, 숙박업은 3천 1백만원이다. 1968년에 대비할 때 도매업은 22.8배, 소매업은 36.9배, 음식업은 27.0배, 숙박업은 36.4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1985년을 기준으로 한 實質로 보면 도매업은 2.4배, 소매업은 5.8배, 음식업은 3.4배, 숙박업은 4.2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經常으로 본 1人當販賣額은 1986년의 경우 도매업은 6,380만원, 소매업은 1,770만원, 음식업은 660만원, 숙박업은 900만원이며 이는 1968년에 대비할 때 각각 19.2배, 33.3배, 25.6배 및 30.4배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1985년을 기준으로 한 實質로 보면 각각 2.0배, 5.2배, 3.2배 및 3.5배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전반적인 販賣效率의 향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2) 規模別 販賣效率의 推移

經常에 따른 1986년의 도매업의 規模別 1店當 販賣額을 보면 10人 이상 규모는 17억 5천 2백 70만원이며, 1~2人 규모는 6천 90만원으로서 양자의 규모격차는 아주 커서 1~2人 규모의 그것은 10人 이상 규모의 그것의 3.5%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實質에 의해 1968년에 대비한 규모별 판매효율을 보면 각 규모마다 販賣效率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2.6배로 늘어난 5~9人 규모이며 다음은 3~4人 규모의 2.1배 증가이다.

소매업의 경우 10人 이상 규모는 8억 6천 120만원이며, 1~2人 규모는 이의 2.1% 정도의 수준인 1,840만원이다. 實質에 의해 1968년에 대비하여 보면 5~9人 규모의 販賣效率의 증대가 가장 현저하여 5.8배에 이르며 다음은 3~4人 규모의 3.8배 증가이다.

經常에 따른 1人當 販賣額을 보면 1986년의 도

매업의 경우 10人 이상 규모는 8,510만원인데 대해 1~2人 규모는 3,620만원으로 후자는 전자의 42.6%의 수준이다. 實質에 의해 1968년에 대비하여 보면 10人 이상 규모는 2.6배의 수준으로 증가폭이 가장 크고 1~2人 규모는 2.6배의 수준이어서 도매업전체로서 販賣效率의 向上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 經常에 의한 1986년의 1人當 販賣額을 보면 10人 이상 규모는 3,830만원이며 1~2人 규모는 이의 약 32% 수준인 1,230만원이다. 5~9人 규모는 3,810만원으로서 10人 이상 규모와 큰 차이가 없으며 3~4人 규모는 2천 20만원이다. 實質에 의해 1968년에 대비한 販賣效率의 向上幅을 보면 5~9人 규모가 5.7배, 3~4人 규모는 3.9배, 1~2人 규모는 3.3배이며 10人 이상 규모는 1.5배이다.

(3) 業種別 販賣效率의 推移

經常으로 본 業種別 販賣效率의 경우 도매업은 평균하여 1986년의 1店當 販賣額은 4억 5천 130만원인데 이를 上廻하는 업종을 보면 의약·화

<표 28> 規模別 販賣效率의 推移—1人當 販賣額

(단위 : 백만원)

	經 常					實 質				
	1~2人	3~4人	5~9人	10人 이상	계	1~2人	3~4人	5~9人	10人 이상	계
(도 매 업)										
1968	2.3	2.3	3.0	4.1	3.0	0.2	0.2	0.2	0.3	0.2
1971	6.4	5.3	7.4	8.7	6.8	0.4	0.3	0.5	0.6	0.4
1976	21.0	20.7	30.0	29.1	26.1	0.5	0.5	0.8	0.8	0.7
1979	23.5	22.8	28.3	46.4	33.0	0.4	0.4	0.5	0.8	0.6
1982	24.6	27.5	41.5	63.3	40.9	0.3	0.3	0.4	0.6	0.4
1986년	36.2	41.5	60.1	85.1	63.8	0.4	0.4	0.6	0.9	0.6
1968년 대비(배)	15.7	17.9	20.1	20.6	—	2.0	2.3	2.6	2.6	—
평균 대비(배)	0.6	0.7	0.9	1.3	1.0	0.6	0.7	0.9	1.3	1.0
10인 이상규모대비	42.6%	48.8%	70.6%	100.0%						
(소 매 업)										
1968	0.4	0.6	0.8	3.1	0.5	0.0	0.1	0.1	0.3	0.1
1971	1.0	1.1	1.1	2.3	1.0	0.1	0.1	0.1	0.1	0.2
1976	4.1	5.5	8.0	9.6	4.8	0.1	0.1	0.2	0.3	0.2
1979	7.7	11.1	19.1	24.5	9.4	0.1	0.2	0.3	0.4	0.0
1982	—	—	—	—	—	—	—	—	—	—
1986년	12.3	20.2	38.1	38.3	17.7	0.1	0.2	0.4	0.4	0.0
1968년 대비(배)	28.3	32.7	48.4	12.5	35.2	3.3	3.9	5.7	1.5	
평균 대비(배)	0.7	1.1	2.1	2.2	1.0					
10인 이상규모대비	32.0%	52.8%	99.4%	100.0%						

〈표 29〉業種別 販賣效率의 推移—1)店當 販賣額

(단위: 백만원)

(도 매 업)	經						常						實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평균대리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비율변화 (68~86)	
농산물·음식료품	10.5	22.9	102.0	195.8	252.3	380.0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3.0
섬유·의복·장신구	9.8	17.7	121.1	78.8	62.9	122.8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5
의약·화학제품	29.6	41.5	117.2	360.0	422.8	855.6	1.9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6.3
기계·가구	27.3	33.7	66.3	102.6	129.3	255.2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4
철물·가구	68.3	41.1	409.2	318.5	384.5	303.2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2.4
건축재료	27.2	112.9	232.8	247.0	181.7	393.5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1.8
금속·광물	2.0	23.5	95.3	92.5	46.6	663.6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6.6
운송기계	-	-	-	-	-	507.4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
기타	6.4	8.6	107.6	92.4	74.8	128.7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8
평균	22.6	37.7	156.4	185.9	194.4	451.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8

(소 매 업)	經						常						實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평균대리비 (%)				
음식·담배	1.6	3.5	20.7	34.3	36.1	20.1	0.128	0.1	0.128	0.1	0.128	0.1	0.128	0.1	0.128	0.1	0.128	0.1	0.128	0.1	0.128	0.1	0.128	0.1	0.128	0.1	0.19	2.0	
섬유·의복	0.5	0.9	2.4	6.1	7.3	23.1	0.039	0.0	0.039	0.0	0.039	0.0	0.039	0.0	0.039	0.0	0.039	0.0	0.039	0.0	0.039	0.0	0.039	0.0	0.039	0.0	0.22	2.3	
철물·가구·건구	1.1	2.5	11.3	43.8	44.3	53.0	0.093	0.1	0.093	0.1	0.093	0.1	0.093	0.1	0.093	0.1	0.093	0.1	0.093	0.1	0.093	0.1	0.093	0.1	0.093	0.1	0.51	5.3	
의약·화학제품	1.5	2.7	19.6	24.0	29.1	40.0	0.125	0.1	0.125	0.1	0.125	0.1	0.125	0.1	0.125	0.1	0.125	0.1	0.125	0.1	0.125	0.1	0.125	0.1	0.125	0.1	0.38	4.0	
시계·장신구	1.4	3.5	10.5	22.5	-	30.9	0.112	0.1	0.112	0.1	0.112	0.1	0.112	0.1	0.112	0.1	0.112	0.1	0.112	0.1	0.112	0.1	0.112	0.1	0.112	0.1	0.30	3.1	
종이·문구	0.4	1.0	5.2	8.8	23.3	22.0	0.035	0.0	0.035	0.0	0.035	0.0	0.035	0.0	0.035	0.0	0.035	0.0	0.035	0.0	0.035	0.0	0.035	0.0	0.035	0.0	0.21	2.2	
연료·주유소	1.5	3.9	19.3	58.3	94.6	448.7	0.123	0.2	0.123	0.2	0.123	0.2	0.123	0.2	0.123	0.2	0.123	0.2	0.123	0.2	0.123	0.2	0.123	0.2	0.123	0.2	4.36	45.1	
가정용연료	-	-	680.7	936.9	496.0	26.7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330.0	-	-	-	-	-	-	-	-	-	-	-	-	-	-	-	-	-	-	-	-	-	0.25	2.7
종합소매업	-	-	-	-	-	9699.9	-	-	-	-	-	-	-	-	-	-	-	-	-	-	-	-	-	-	-	-	-	3.21	33.2
백화점	-	-	-	-	-	420.9	-	-	-	-	-	-	-	-	-	-	-	-	-	-	-	-	-	-	-	-	-	94.3	975.4
수퍼마켓	-	-	-	-	-	115.2	-	-	-	-	-	-	-	-	-	-	-	-	-	-	-	-	-	-	-	-	-	4.09	42.3
기타종합소매업	-	-	-	-	-	81.18	-	-	-	-	-	-	-	-	-	-	-	-	-	-	-	-	-	-	-	-	-	1.12	11.6
평균	0.886	2.002	85.50	126.0	81.18	110.49	0.073	0.1	0.073	0.1	0.073	0.1	0.073	0.1	0.073	0.1	0.073	0.1	0.073	0.1	0.073	0.1	0.073	0.1	0.073	0.1	1.07	11.6	

〈표 30〉 業種別 販賣效率의 推移—1人當 販賣額

(단위: 백만원)

業種	經						實							
	常						實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1968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平均對比 (%)	平均對比 (%)
(도매업)														
농산물·음식료품	3.372	7.231	26.42	35.26	49.84	65.20	0.2	0.45	0.68	0.6	0.50	0.662	92.8	0.39
섬유·의복·장신구	2.444	6.396	30.03	25.93	28.83	46.66	0.1	0.40	0.77	0.4	0.29	0.473	66.4	0.28
의약·화학제품	4.179	6.430	12.44	42.32	57.14	95.36	0.3	0.40	0.32	0.7	0.58	0.968	135.7	0.63
기계·가구	4.641	9.545	14.44	20.78	35.15	51.04	0.3	0.60	0.37	0.3	0.35	0.518	72.6	0.15
철물·가구	13.81	8.754	80.56	59.29	107.0	62.52	1.1	0.55	2.07	1.0	1.08	0.634	88.9	0.47
건축·광물·기계	4.782	25.37	53.65	42.99	43.62	73.39	0.3	1.60	1.38	0.7	0.44	0.745	104.4	0.36
운송·기계	0.379	3.307	21.32	17.78	10.88	111.1	0.0	0.20	0.54	0.3	0.11	1.128	158.2	1.10
기타	1.715	2.451	27.02	26.42	23.89	97.93	—	—	—	—	—	0.994	139.3	—
평균	—	—	—	—	—	70.29	—	—	—	—	—	0.297	41.8	0.16
(소매업)														
음식·담배·의약품·가구·전자제품·화학·장신구	0.391	0.855	3.887	7.086	9.108	12.4	0.032	—	—	—	—	0.12	43.5	0.088
시계·문구·주유·연가	0.621	1.020	4.361	9.904	11.44	14.0	0.051	—	—	—	—	0.13	49.1	0.085
의약·화학·장신구	0.706	1.527	5.838	23.22	19.48	23.1	0.058	—	—	—	—	0.22	81.1	0.166
시계·문구·주유·연가	0.571	1.149	19.18	20.92	—	18.7	0.047	—	—	—	—	0.18	65.7	0.135
의약품·주유·연가	0.684	1.734	2.373	4.057	—	17.7	0.056	—	—	—	—	0.17	62.2	0.116
시계·문구·주유·연가	0.381	0.662	3.092	6.450	8.805	8.2	0.031	—	—	—	—	0.07	28.7	0.048
의약품·주유·연가	0.817	1.754	10.01	23.95	47.00	120.1	0.067	—	—	—	—	1.16	421.7	—
의약품·주유·연가	0.854	1.300	4.092	9.167	8.977	13.6	0.070	—	—	—	—	0.13	47.9	—
의약품·주유·연가	—	—	13.98	19.00	39.12	47.5	—	—	—	—	—	0.46	166.9	—
의약품·주유·연가	0.6	1.3	6.6	13.8	20.5	28.5	0.1	—	—	—	—	0.3	—	—

학제품(1.9배), 産業用品都賣의 比重이 높은 금속광물(1.5배), 다음은 1.1배의 운수장비 도매업이다. 가장 낮은 업종은 30%수준인 의류·장신구도매업이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1店當 販賣額의 평균은 1억 1천 49만원인데 實質로는 107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을 上廻하는 업종을 보면 종합소매업에 속하는 백화점업만 97배나 上廻하고 있어 평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모두 이를 下廻하고 있는데 그 중 상대적으로 판매효율이 높은 업종은 45.1%의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업이고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슈퍼마켓이 42.3%의 수준이며 나머지는 모두 10% 미만의 수준이다.

다음 經常에 의해 從事者 1人當 販賣額을 보면 1986년의 도매업의 경우 평균 7,029만원인데 實質로 보면 29만원이다. 평균(實質)을 上廻하는 업종은 광물·금속재료(1.6배), 운송장비(1.4배), 의약·화학제품(약 1.4배), 건축재료

(1.0배)이고 나머지 업종은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가장 낮은 업종은 섬유·의류·장신구업의 66.4%수준이다. 實質로 본 1人當 販賣效率는 29만여원인데 1968년에 대비할 때 1人當 販賣效率이 줄어든 업종은 47만원이 낮아진 철물·가구류도매업이며 기타 업종은 모두 판매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업종은 110만원이 증가한 광물·금속재료도매업이다. 이는 産業資源價格의 高騰때문이다.

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經常에 의한 1人當 販賣額은 평균하여 2,850만원인데 이는 1985년을 기준으로 한 實質로는 약 30만원(27만 7천원)이다. 이 평균을 上廻하는 업종은 42배에 이르는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업과 16.6배에 이르는 종합소매업이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가장 판매효율이 낮은 업종은 평균의 43.5% 수준인 음식료품·담배소매업이고, 다음은 49.1% 수준의 섬유·의복·신발·장신구소매업이다.